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철학사에서 유명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B.C. 384에 태어났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바로 전자책으로 출간되는 '생윤보감'을 수험생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먼 고대를 거스르고 왔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총 60문제가 있고, 3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세트당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껏 출제된 평가원의 기출과 EBS 교재를 참고하여 순수 변형한 N제입니다. 문제마다 자세한 해설이 있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준 있는 킬러와 준킬러 문제도 같이 있으므로, 이미 생활과 윤리를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모의모사를 구매하십시오.



# 생윤보감 홍보

## ‘생윤보감 모의고사’란?

생윤(생활과 윤리) + 보감(寶鑑)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보감이란, 다른 사람이나 후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일이나 사물 혹은 그러한 바를 적은 책입니다.

이러한 보감의 사전적 의미를 따라,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녹여낸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라는 의미에서 ‘생윤보감 모의고사’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2022학년도 수능 대비)는 1세트당 20개의 문제로, 총 3개 세트로 구성되었습니다.

## 모의고사 특징

[I.]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 모의고사는 6,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II.] 평가원의 기출문제들과 교과서, 원전 등을 참고하여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출제 근거가 명확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III.]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출제하였으므로, 기출문제를 학습할 수 있고, 이미 학습한 기출문제를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의고사입니다.

[IV.] 평가원에서는 시각 자료(일러스트 등 각종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압박감을 줄여 주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평가원의 출제 경향에 맞춰, 각종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V.] 매우 구체적인 해설로써 문제와 해당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A3용지 기준으로 6쪽~7쪽 분량입니다.

[VI.] 각 단원에서 학생들이 무심코 지나가면 틀리기 쉬운 부분들로 하여금 어려운 선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기회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VII.]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쓰이는 동일한 답안지(OMR 카드) 파일 제공함으로써 실전 감각과 실전 연습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모의고사 예시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할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p> <p>을: 인간을 특별하게 우대하고, 채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차별하는 태도는 중 차별주의이다. 채고 감수 능력은 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p> <p>병: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별 레〉</p> <p>A: 병만의 입장 B: 갑과 을만의 공동입장 C: 을과 병만의 공동입장 D: 갑과 병만의 공동입장</p>

〈보 기〉

ㄱ. A: 동물의 도덕적 고려는 의무론의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  
 ㄴ. B: 포유동물을 실험에 사용하는 것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ㄷ. C: 자기 보존에 대한 권리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은 아니다.  
 ㄹ. D: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도덕적 행위 능력의 주체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I. <1회차 6번 문항>

7.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렴하다는 것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그런 까닭에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한 것이니,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즉, 재물은 모두가 크게 탐욕하는 바이지만 탐욕하는 것과 재물보다도 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버리고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지혜가 원대하고 생각이 깊은 자가 탐하는 욕심으로 청백리(淸白吏)\*가 되어서 크게 영달할 터전을 닦는 것이다. 반면에 지혜가 짧고 생각이 얕은 자는 번번히 많은 재물을 탐해서 몸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비록 온갖 기술자가 관아에 소속되어 있을 지라도 절대로 사사로운 용품을 제조하지 말아야 청렴한 선비의 관부인 것이다.

\* 청백리: 마음이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

- ① 공직자는 청렴함을 갖추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의 사리(私利)만을 채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공직자는 나라의 운영을 위한 지혜와 사유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④ 공직자는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어떤 욕구로도 다른 것을 탐하려 해서는 안 된다.

### II. <1회차 7번 문항>

19. 다음 가상 대담의 선생님이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p>선생님께서 기존의 윤리적 사조가 배려를 경시하여 사회 갈등이 생겨난 것임을 발표하셨는데요. 오늘은 배려와 관련한 선생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p> 	<p>네. 먼저 여성들이 가진 도덕적 관심의 본질은 남성들과 다릅니다.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귀기울이며 타인을 보살피려는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p> 
<p>그렇군요.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타인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특성을 타고난다는 것이군요.</p> 	<p>맞습니다. 한편, 남성들의 윤리는 정의와 의무, 공정 등을 중시하는 정의 윤리를 추구합니다. 정의 윤리가 지배적이었던 사회에서 이제는 여성의 '다른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p> 

- ① 여성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② 남성의 도덕적 지향과 여성의 도덕적 지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 ③ 정의 윤리를 타파하여 남녀 모두가 배려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타인을 배려한다.
- ⑤ 남성적 기준으로 여성 발달을 측정할 시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된다.

III. <2회차 19번 문항>

18.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또한 시민 불복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을: 시민 불복종을 통해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게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음을 선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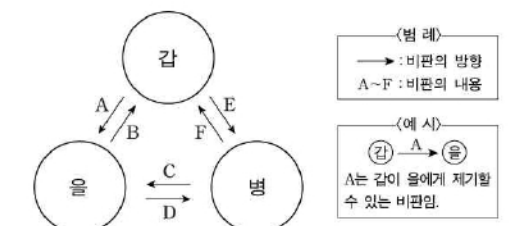
<보기>

- ㄱ. 갑: 시민 불복종 이행 전에 합법적 수단 사용을 다해야 한다.
- ㄴ. 갑: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현저히 위반한다.
- ㄷ. 을: 시민 불복종 그 자체는 법의 경계선 밖에 있는 행위이다.
-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이 다수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IV. <2회차 18번 문항>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정의는 자신에 관한 특수한 지식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의되는 원칙에 근거한다. 그 상황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상황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p> <p>을: 최초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移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p> <p>병: 각각의 분배의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정의롭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p>
(나)	 <p>〈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예시〉 ① 甲 → A → 乙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자기 노동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도 소유권이 발생함을 간과한다.
- ② B: 분배의 재분배적 기능은 필연적으로 정형적 분배가 되게 함을 간과한다.
- ③ B, F: 우연성이 배제된 가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기 어려움을 간과한다.
- ④ C: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D, E: 사회에서 분배하는 가치는 제각각의 고유성을 지님을 간과한다.

V. <3회차 19번 문항>

㉠	·A
㉡	·A
㉢	·III
㉣	·II
㉤	·I
원문	원문

제공되는 답안지(OMR카드) 견본파일

2022학년도 수능대비 생연보검 견본 답안지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필 또는 샤프 등의 필기구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뒷면의 <수험생 준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시 탐구 영역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않 것.)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0

\* 문체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 확인 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적  
확인란**

**성명**  
수험번호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9

\*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의  
선택과목  
순서대로  
답란에 표기

**감독관  
확인**  
(수험생은 표기  
하지 않 것.)

서명  
또는  
날인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한국사)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문번	답 란				
	1	1	2	3	4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 탐구 영역 시간별(30분)  
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 됩니다.

\* 탐구 영역 시간별(30분)  
로 지시어 채택한 과목  
이 아닌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  
위 및 각 시간별 종료령  
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되  
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  
됩니다.

\*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답란부터 수험표에 표기된  
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 탐구 영역은 문형(출수형  
/찍수형) 구분 없이, 단일  
문형입니다.

문번	답 란				
	1	1	2	3	4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 무단 사용, 무단 배포 절대 금지

수험생 준수 사항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필, 샤프 등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안지를 받으면 필적확인란, 성명, 수험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란에 올바르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 성명란에는 수험생의 성명을 바르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험번호란에는 아비리아 숫자로 기재하고 해당란에 "0"과 같이 완전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 문형란에는 배부받은 시험 문제지의 문형(출수형, 찍수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란에 "0"과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의 '문형'란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종으로 표기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관의제공대상자의 문제지 문형은 무시한다.
- 답란은 <보기>와 같이 올바르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 답란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란에만 완전하게 표기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필기구의 종류 및 표기 크기와 관계없이 2곳 이상의 답란을 표기한 경우(2교시 단답형 답란 제외)
  - 농도가 얇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란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 유색 볼펜, 연필, 샤프 등 필기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한 경우 등
  - 답란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흰색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수정하여야 합니다. (정정액, 수성 지우개, 연필, 샤프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표기된 답란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가지는 흰색 수정테이프나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 주십시오.
  -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등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답안지 교체를 원할 경우 교체 가능합니다.
- 답안지에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답안지를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견면의 타어머마크(■ ■ ■ ■ ■)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수에 관계없이 제1선택 답란부터 수험표에 표기된 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 수험표에 제1선택 : 생활과 윤리, 제2선택 : 사회·문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제1선택 답란에 생활과 윤리, 제2선택 답란에 사회·문화 답을 표기)

※ 무단 사용, 무단 배포 절대 금지